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 그룹의 삶

- 일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4:0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108호
- 주최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한국인문사회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한국인문사회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 그룹의 삶

일시 : 2023. 11. 24 (금), 14:00~18:00
장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108호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14:10~14:40	주제발표 1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에 관한 소고 :악셀 호넷(A. Honneth)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발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14:40~14:50	휴식	
14:50~15:20	주제발표 2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발표 : 최순례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박은주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토론 : 김영수 (한국장애인개발원)
15:20~15:30	휴식	
15:30~16:00	자유발표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교육과 행복에 대한 고찰** • 발표 : 강미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16:00~16:10	휴식	
16:10~17:00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김근면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

[세부일정]

▸일 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4:00~18:00

▸장 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108호

제1부 학술대회 |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 그룹의 삶 [14:00-16:30]

• 좌장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14:10~14:40	주제발표 1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에 관한 소고 : 악셀 호넷(A. Honneth)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발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2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발표 : 최순례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박은주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토론 : 김영수 (한국장애인개발원)
15:20~15:30	휴 식	
15:30~16:00	자유발표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교육과 행복에 대한 고찰** • 발표 : 강미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16:00~16:10	휴 식	
16:10~16:3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제2부 |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30-17:00]

• 진행 : 김근면 (한국인문사회질학회 부회장 겸 연구윤리위원장)

1. IRB 교육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제3부 | 총회 [17:00-18:00]

- 의장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 사회 : 박지선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총무위원장)

1. 성원보고_ 사회 박지선
2. 제7차 총회 개회선언_ 의장 송시형
3. 의장 인사말_ 의장 송시형
4. 학회활동 보고_ 사회 박지선
5. 안건 심의 및 의결_ 의장 송시형, 사회 겸 총무위원장 박지선
   - 제1호 안건 : 2023년 결산보고 및 활동총평
   - 제2호 안건 : 2024년 예산보고 및 활동계획
   - 제3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의장 송시형
7. 폐회선언_ 의장 송시형

※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에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목 차]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 그룹의 삶

❑ 주제발표 1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에 관한 소고

: 악셀 호넷(A. Honneth)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7

▸발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 주제발표 2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15

▸발표 : 최순례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박은주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토론 : 김영수 (한국장애인개발원)

❑ 자유발표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교육과 행복에 대한 고찰 ····· 39

▸발표 : 강미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제2부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진행 : 김근면 (강릉원주대학교)

1. IRB(Institutional Reveiw Board) 교육 ····· 57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64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66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 그룹의 삶

[주제발표 1]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에 관한 소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주제발표 2]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최순례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박은주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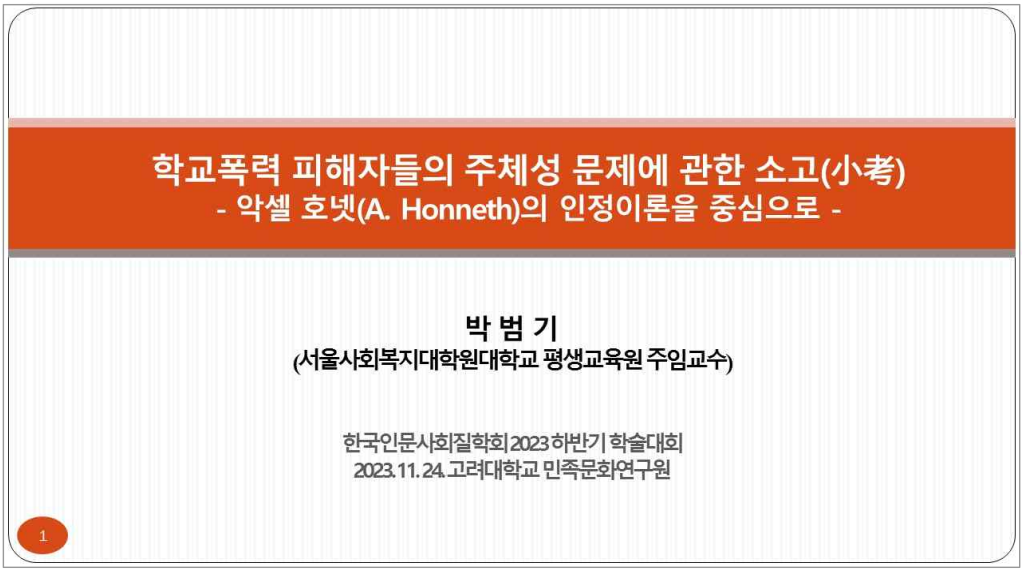
[자유발표]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교육과 행복에 대한 고찰

- 강미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에 관한 소고

박 범 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I. 들어가며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정한 문제는?

한국에서의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대법'): 처벌위주의 무관용주의가 근간인 법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조치 조항은 가해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넘어 낙인효과까지 발생, 문제의 원인을 가해자에게로만 돌림

-학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적 정의: 가해자에게 낙인X,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점, 학교폭력 발생 이후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전의 예방적 차원의 방법론이 부재함, 회복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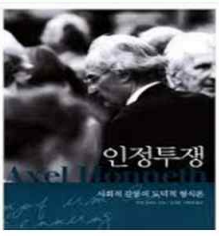
I. 들어가며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정한 문제는?

학셀호넷의 인정이론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데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있음

- 상기(上記)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사건은 집단화, 저연령화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그 수법이나 모습도 흉폭화, 저연령화, 지속화 양상을 보이는 추세이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국가와 관련기관들이 다양한 제도 및 교육, 상담등을 시행했지만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3.8%에 해당(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 또한 학대법의 무관용주의 기조와 회복적 정의의 모호함과 예방책 부재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악셀 호넷(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적실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악셀호넷의 인정투쟁이론을 근간으로 하며 타자로부터의 인정-> 자존감 획득-> 자아실현을 이룩한다는 이론, 자존감의 훼손-> 투쟁과 저항심을 일으켜 인정획득을 꾀함, 개인간의 상호인정관계는 일종의 규범이며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함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상호주관적 인정의 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편적 인권, 존재 가치의 훼손으로 볼수 있음. 이런측면에서 인정이론은 학교폭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해 줄수 있으며(문성훈, 2010),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상호인정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줌



Ⅱ. 악셀 호넷(Axel Honneth)의 인정이론으로 본 학교폭력

- 호넷은 그의 저서 <인정투쟁>과 <분배냐 인정이냐>에서 인정의 유형과 의미를 논함

- 우선 그는 <인정투쟁>에서 헤겔과 미드에 의해 기획되었으나 미완의 상호인정을 세가지 형태로 구성함: 신체적 불가침에 대한 훼손, 사회적 불가침성에 대한 훼손, 사회적 가치부여의 훼손

- 신체적 불가침성에 대한 훼손-> 자신감을 상실, 사회적 불가침성에 대한 훼손-> 권리훼손으로 사회적 죽음, 사회적 가치부여의 훼손은 옛날 명예나 오늘날의 평판이 무너지는 것으로 자신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음

-이런 3가지 차원에서 무시 경험은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동기화의 자극제

- 이와같이 악셀호넷의 인정이론에 따르면 폭력은 타인의 신체, 권리, 개성에 대한 극단적 훼손으로 볼수 있음, 즉 폭력은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 훼손으로 규정할 수 있음

- 학교폭력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학교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적대적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와 학교현실에서 호넷의 <상호인정관계>는 상당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음

출처: 문성훈(2010)

네이버 블로그
G.W.F. 헤겔 - 변증법...

나무위키
조지 허버트 미드 - ...

5

Ⅲ. 악셀 호넷의 인정이론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

-학폭 피해자는 우선 신체적 폭력을 당하면 신체적 정체성에 대해 훼손당하게 됨->이는 타인과의 정서적 친밀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긍정적 자기의식>의 훼손으로 이어짐

-학폭 피해자는 학급이나 학교내에서 같은 급우로서의 권리가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권리 훼손>이나 <이성적 정체성>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이 훼손됨

-학폭 피해자는 조르주 아감벤이 이야기한 무화(無化)된 존재(호모 사케르)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제되는 경우가 높음-> <개성적 정체성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짐= 개인이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훼손당함

- 학대법이 가해자의 관점으로 규정한것이라면 인정이론으로 바라본 학폭은 피해자의 권리와 개성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할 수 있음

- 학폭 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훼손된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과 관련해 가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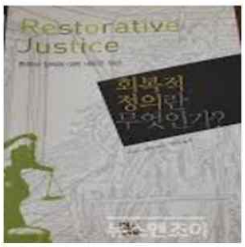
- 인정이론 관점에서 학폭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무시와 가해자의 과도한 지배력 인정에 대한 강요때문에 발생함 따라서 기본적 권리, 학생 개인에 대한 개성 존중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함

한국일보
카톡 지옥'서 24시간 학폭... 피해자 "더 글로리 ...

Ⅳ. 나가며 : 피해자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모색

- 기존 학대법의 무관용주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위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므로 가해자는 처벌만을 피하기 위한 행위만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수치심이나 용서받으려는 마음이 없음 이에 대해 인정이론적 관점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는 일종의 도덕적 영역으로 취급됨--> 이런 관점에서 학폭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

- 학대법의 대안으로 부각된 회복적 정의는 추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이 모호함 이에 대해 인정이론적 관점에서는 3가지 차원에서의 인정관계 회복을 논함 즉 신체, 권리, 공동체 내에서의 개성 인정과 관련해 기존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교육의 내용등을 확장 적용할 필요가 있음



7

참고문헌

- 문성훈(2010). 폭력개념의 인정이론적 재구성. **사회와 철학, 20**, 63-96.
- 악셀 호넷 (2011).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 악셀 호넷 & 낸시 프래이저 (2014). **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 책.
- 악셀 호넷 (2015). **물화(物化).** 사월의 책.

8

[토론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주체성 문제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

박 지 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인들의 끊이지 않는 학폭 미투를 비롯하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터질 정도로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도 학교폭력을 각인시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현실판 더 글로리'인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씨 사건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매스컴을 통해 고발하며 세상 밖으로 알렸지만 결국 피해자가 자살한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하는 복수와 응징을 보며 사람들은 피해자 서사에 공감하는 한편,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과 점점 추락해 가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복수가 성공한 모습을 통쾌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하는 모습에 열광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 있어 피해자보호보다 가해자 처벌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박범기 교수님의 발표는 시의성은 물론,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발제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

치가 기본 방향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줍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주로 현상 자체를 줄이기 위한 처벌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엄벌주의 기조를 조금씩 완화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강하게 처벌할수록 관련자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무엇보다 결코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0년 2만 5,903건에서 2022년 6만 2,052건으로, 발생 건수가 확연히 늘어난 점은 무관용원칙의 완화 때문인지, 정책 성과가 없기 때문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께서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현행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짚으며 정작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피해당사자가 주변화되고, 정체성까지 훼손당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가치인 인권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는 배려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앞선 발제자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발제자께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대세로 여겨지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추상성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호넷(A. Honneth)의 '인정이론'에 기반한 신체/권리/공동체 회복 등 세 가지 관점이 피해자 정체성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그간의 시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옮겨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발제문 전문이 아닌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토론문을 작성하고 있기에 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지 저어됩니다. 발표 자료에 등장하는 회복적 정의나 인정이론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를 토대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위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먼저, 회복적 정의와 인정이론, 두 관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공동체 참여와 회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이에 두 관점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정이론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된 처방과 정확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복적 정의든, 인정이론에 따른 대안이든 정책이나 실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 드립니다. 두 관점 중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마주봄(?)’, ‘두 주체 간의 관계’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 지점인 것 같습니다.

① 발제자께서는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성에 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발제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② 개인적으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회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이에 대한 진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주는 것인지?

③ 또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④ 아울러 활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력 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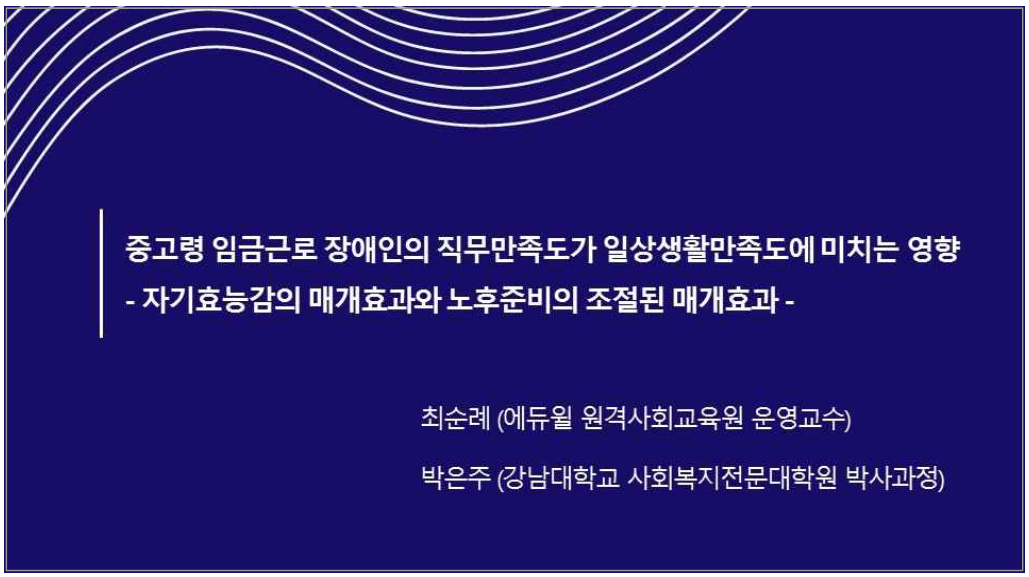
위의 사항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외현화 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갈등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며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학교폭력 뉴스를 보면, 수법(?)이 교묘하지고 은폐되고, 점점 더 저연령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이라는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의 대사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방치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정이론을 활용하여 피해자 정체성 회복을 모색한 발제자의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대안적 시도로서 학교폭력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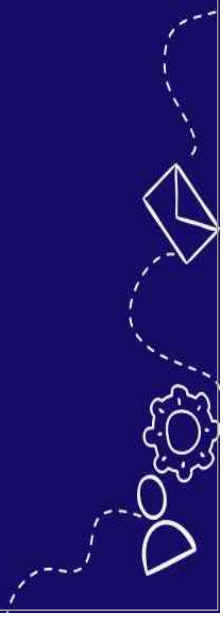
최 순 례
(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 운영교수)

박 은 주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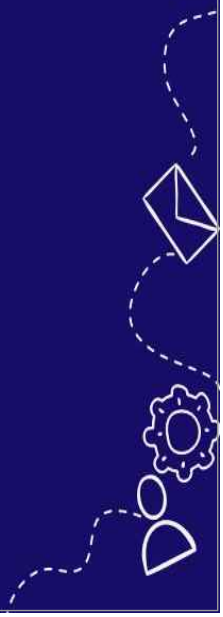
1 서론

- 인간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의미(이채식·김명식, 2016).



1 서론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균수명과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하는 기대여명의 증가(김정애 외, 2022).
- 장애인의 고용은 과거에 비해 증가
- 일반인에 비해 임금과 근로 조건 등이 열악
-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및 고용유지의 문제 및 삶의 질 연결(박광표·김동철, 2017; 최칠성·정은주·최성헌, 2017).



1 서론

- 장애인의 노화관련 질환 비장애인보다 더 많음,
- 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264만5천명, 전년대비 8,000명↑)
- 전체 인구 대비 5.2% (보건복지부, 2023)
- 지체 장애 비율 감소, 청각·발달장애 · 신장 비율 증가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1년 38.0% , '22년 52.8% 지속 증가

출처: 장애인복지뉴스, https://www.dwbnews.kr/news/userArticlePhoto.html

1 서론

-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즉, 자아존중감, 차별경험, 장애와 직장특성,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됨 (유수형·조상미, 2021; 최아영·홍서준, 2023; 한상현, 2020; 황현녀· 이철민, 2023; Uppal, 2005).
- 베이비부머 세대, 일반인 및 노인 ,일반인 대상으로 시도된 연구, (강시온·조규형·한창근, 2020;김혜지·이영선, 2019), 장애 노인이나 특정 장애 연구 (민성희·오유수, 2020; 송진영·강영미, 2014; 최희철·윤선희, 2021)는 진행되었지만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함(미디어생활, 2019).

1 서론

첫째,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셋째,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가?

2 문헌고찰

1.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

- 만 40세 이상, 45세 및 50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관해서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정의 (김경화· 신은경, 2022; 원서진·김혜미·송인욱, 2016). 본 연구의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 중년의 임금근로자는 만 45세 이상

- 직무만족도 정의: Locke(1976)는 직무만족도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직무와 직무평가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따른 감정, 직무에 관한 정서적 감정 반응 및 보상을 포함(박광표·김동철, 2015, 최영신, 2022; Fisher, 2000).

2 문헌고찰

1.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

-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무만족도 내적인 요인의 한계성이 보고되므로 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

- 박미량(2016)은 안정적인 직무환경은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침

- 직무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관해 더욱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생활만족도는 높았다고 보고 됨(신준옥, 2015; 염동문·이성대,2014).

2 문헌고찰

1.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

-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언급되며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적인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 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을 느끼는 것, 개인특성과 환경을 포괄하는 상태, 개인이 전반적인 삶에서 만족하는 정도, 스스로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만족의 정도 (이수용·나운환, 2017; 최순례·이홍직; 2022)

2 문헌고찰

2.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자 기대와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기상황이나 장애를 만나게 될 때 지속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권성현, 2019; 이승준, 2014; Baundra, 1977).

-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긍정적 심리 효과를 가능하게 하고 긍정적 심리적 특성을 형성, 직무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선우·박소리·이지민, 2019; Kocman & Webe, 2018).

2 문헌고찰

2.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유수형과 조상미(2021)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직무만족도의 질적 부분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과중심적 변수라는 개념을 넘어 심리 및 정서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짐(류가연· 조성찬·차재빈, 2018; 전리상, 2017; 연은모·최효식; 2019).

2 문헌고찰

2.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일상생활만족도는 향상 됨

-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2 문헌고찰

3.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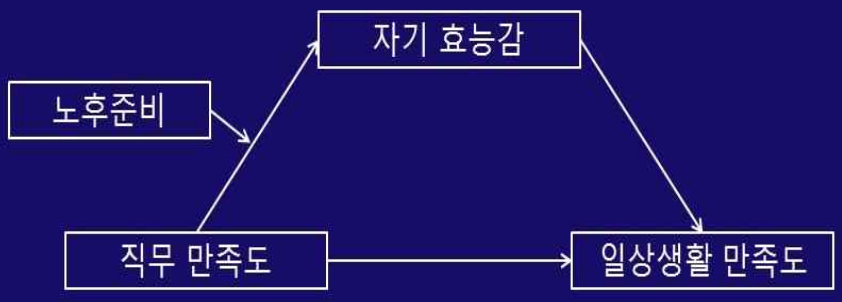
- 장애인의 노후준비는 생활만족도, 행복감, 삶의 질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 됨(설경란·송진영·장재웅·송보근, 2018).

- 송영숙과 박정하(2015)는 생활습관과 삶의 질 사이에서 노후준비가 조절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 고령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 및 노후준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됨(박주영, 2013).

- 고령자를 중심, 노후준비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의 필요성 부각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 수준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노후준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됨(박지현, 2018; 신학진, 2014).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2. 연구대상

- 장애인 고용패널 2차 웨이브는 표본설계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장애유형, 연령,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한 데이터로 기존패널의 노후화를 보완한 데이터

-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6차 조사(2021년)의 자료 중 메인 데이터, 4,577명의 임금근로자 1,582명 중 만 45세 이상으로 구성된 중고령자의 결측치 처리를 한 806명

3 연구방법

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

-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만족도는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요즘 건강상태, 한 달 수입 또는 용돈,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총 9개 문항으로 분석

- 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 점수가 올라갈수록 일상생활만족도는 높아짐, 문항의 신뢰도는 .624

3 연구방법

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2) 독립변수: 직무만족도

- 직무만족도는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 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장애에 대한 배려와 편의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평균으로 분석

- 각문항의 척도는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올라갈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짐, 문항의 신뢰도는 .897

3 연구방법

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3)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은 Schwarzer, R., & Jerusalem, M. (1995)가 개발하고 Young- Min Lee., Schwarzer R., and Jerusalem, M. (1994)에 의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10문항의 평균을 활용

- 측정은 4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짐, 문항의 신뢰도는 .865

3 연구방법

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4) 조절변수: 노후준비

-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에 관한 경제적 준비 여부로 구성된 변수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1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0으로 더미 변수화함

3 연구방법

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5) 통제변수

- 성별은 남성=1, 여성= 0으로, 혼인상태는 기혼 및 동거=1, 미혼, 사별, 별거=0,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0, 고졸 및 대졸=1,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0의 더미 변수로, 연령과 소득은 연속변수를 사용

3 연구방법

4. 자료분석 방법

-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PROCESS Macro 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 둘째, 주요변수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
- 셋째,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2013)의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
- 넷째,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들 변수 간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모델 4번, 1번, 7번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 마지막,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효과 검증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
- 기혼이 높은 수치
- 고졸 이상이 높은 수치
- 심하지 않은 장애가 다수
- 연령은 평균 54세
- 소득은 평균 236만원

- 직무만족도는 최소 1, 최대 5, 평균 3.27(.538)
- 자기효능감은 최소 1, 최대 4이며 평균은 2.99(.419)
- 노후준비는 최소 0, 최대 1, 평균은 .402(.491)
- 일상생활만족도는 최소 2.11. 최대 5.50, 평균은 3.70(.51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89	73.1
	여성	217	26.9
혼인상태	기혼 및 동거	559	69.4
	미혼, 이혼 및 사별	247	3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8	24.6
	고졸 이상	608	75.4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634	78.7
	심한 장애	172	21.3
연령	최소= 45 최대= 69 M= 54.18 SD= 6.620		
소득	최소= 20 최대= 1000 M= 236.72 SD= 145.469		
직무만족도	최소= 1 최대= 5 M= 3.27 SD= .538		
자기효능감	최소= 1 최대= 4 M= 2.99 SD= .419		
노후준비	최소= 0 최대= 1 M= .402 SD= .491		
일상생활만족도	최소= 2.11 최대= 5.50 M= 3.70 SD= .510		

4 연구결과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

- 직무만족도에 대해 일상생활만족도는 (r=.422, 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
- 자기효능감에 대해 일상생활만족도는 (r=.247, p < .001)
- 직무만족도에 대해 노후준비 (r=.247, p< .001), 자기효능감은 (r=.281, p< .001) 등의 순으로 상관계수는 .110 부터 .422 로 나타나 상관계수의 값이 .6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음

<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1.직무만족도	1			
2.자기효능감	.281***	1		
3.노후준비	.247***	.165***	1	
4.일상생활만족도	.422***	.247***	.110**	1

*p<.05, **p<.01, ***p<.001

4 연구결과

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단계 모형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수 중 교육수준, 소득, 장애정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 모형과 3단계 모형에서는 소득은 정적(+)으로 혼인상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회귀모형은 1단계 모형($F=18.989$, $p < .001$), 2단계 모형($F=76.298$, $p < .001$), 3단계 모형($F=73.023$,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 모형에서 14.4%, 2단계 모형은 40.3%, 3단계 모형에서는 42.5%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464로 잔차의 독립성의 문제는 적으며 분산팽창지수(VIF값)는 1.03에서 1.60의 값으로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 됨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 모형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간 직무만족도($\beta=.190$, $p < .001$), 2단계 모형에서 직무만족도($\beta=.408$, $p < .001$), 회귀계수 3단계 모형에서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도($\beta=.378$, $p < .001$), 자기효능감($\beta=.161$, $p < .001$)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2단계 모형의 베타값($\beta=.408$, $p < .001$)은 3단계 모형($\beta=.378$, $p < .001$)의 베타 값보다 크므로
- 직무만족도와 일상 생활만족도와 간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확인

4 연구결과

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수	모형1 (자기효능감)				모형2 (일상생활만족도)				모형3 (일상생활만족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080	.034	-.032	-.892	.007	.034	.006	.211	.013	.034	.012	.389
연령	.002	.002	.032	.851	.004	.002	.048	1.506	.003	.002	.043	1.367
혼인상태	.049	.031	.054	1.577	-.532	.032	-.484	-16.886***	-.542	.031	-.493	-17.477***
교육수준	.080	.037	.082	2.161*	.062	.037	.052	1.659	.046	.037	.039	1.262
소득	.001	.000	.174	4.185***	.001	.000	.152	4.370***	.000	.000	.124	3.591***
장애정도	-.145	.034	-.141	-4.218***	-.003	.035	-.002	-.076***	.026	.034	.021	.740
직무만족도	.147	.028	.190	3.016***	.385	.029	.408	13.418***	.356	.029	.378	12.435***
자기효능감									.195	.035	.161	5.505***
R^2	.144				.403				.425			
F	18.989***				76.298***				73.023***			

4 연구결과

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용성을 추가적으로 검증
- Spss macro 모델 4를 이용하여 검증 헤이즈(Hayes, 2013)
- 도출된 결과값은 .036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14(하한값), .058(상한값)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

<표 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무만족도 → 자기효능감 → 일상생활만족도	.036	.011	.014	.058

4 연구결과

4.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프로세스매크로(Spss macro) 모델 7번 활용

- 직무만족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노후준비는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g effect)를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노후준비에 따라 이들의 관계는 달라지는 ($F=24.711$, $p < .001$)것으로 확인

- 직무만족도가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하게 됨 <표 5>를 살펴보면 노후준비는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남 ($b= .0704$, $t= 2.076$, $p < .05$),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b= .1640$, $t= 4.1001$, $p < .001$).
-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를 노후준비가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연구결과

4.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5>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간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수	결과변인(자기효능감)			95% 신뢰구간	
	B	SE	t	LLCI	ULCI
직무만족도	.2016	.0331	6.090***	.1366	.2666
노후준비	.0070	.0344	.2026	-.0605	.0744
직무만족도x노후준비	.0704	.0339	2.076*	.0038	.1370
F=24.7111, *p<.05, **p<.01, ***p<.001, R-squared=.085					
변수	결과변인(일상생활만족도)			95% 신뢰구간	
	B	SE	t	LLCI	ULCI
직무만족도	.3677	.0311	11.8424***	.3068	.4287
자기효능감	.1640	.0400	4.1001***	.0855	.2425
F=100.1270*p<.05, **p<.01, ***p<.001, R-squared=.2006					

4 연구결과

4.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헤이즈(Hayes, 2013)가 제안한 Bootstrapping 방식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은 다음의 <표 6>으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유의적이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고 유의적이지 못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다고 해석(배병렬, 2021).

-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로 도출된 결과값은 .0115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004 (하한값), .0275(상한값)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후준비는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을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

- 노후준비를 하게 되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절변수가 높아질수록 매개효과는 강화됨

4 연구결과

4.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노후준비를 하게 되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일상생활만족도 역시 향상됨 , 즉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자기효능감도 향상, 노후를 준비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강해지게 됨
-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떨어져 직무만족도 및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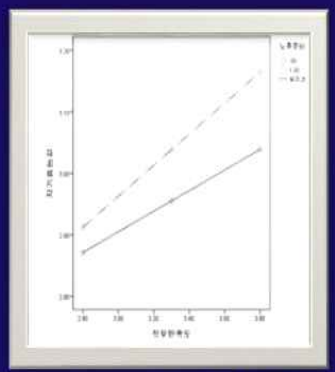
<표 6>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경로	B	SE	95%신뢰구간	
			LLCI	ULCI
직무만족도→노후준비→자기효능감	.0115	.0071	.0004	.0275

4 연구결과

4.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간 노후준비의 조절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노후준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
-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의 가파른 기울기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



<그림 2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5 결론과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 첫째,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김종일, 2013; 이성규, 2014; 박광표·김동철, 2015)와 일치하는 결과임

- 둘째,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을 거쳐 일상생활만족도를 거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냄
-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유수형·조상미, 2021; 한상현, 2020).

5 결론과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 셋째, 노후준비는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하게 되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절변수가 높아질수록 매개효과는 강화되는 것으로 노후준비를 하게 되면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일상생활만족도 역시 향상됨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자기효능감 역시 향상되어 노후를 준비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강해지게 된다는 것

5 결론과 제언

2. 제언

- 현행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반적으로 높여 주었을 뿐(조승연, 2022), 질적인 측면의 장애인 정책은 아직 미흡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직무만족도에 대한 질적 수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주영하·정익준·이화조, 2018), 일터에서의 실현 가능한 정책적 프로그램의 개발,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 심리적 측면의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직업능력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및 고용의 확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정형진, 2021).

5 결론과 제언

2. 제언

- 조직이나 기관 및 기업에서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소진이나 차별, 건강상의 문제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

-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직장에서의 원활한 직무의 수행 및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실무적 지원이 필요(주영하·정익준·이화조, 2018).

- 장애와 노화의 문제가 동시에 가중될 수 있고 생애주기 상 나타날 수 있는 장애별 어려움이 가중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 교육 프로그램을 직장 및 지역사회에 개설하여 실제의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장애인 맞춤형으로 개설

참고문헌

- 강시은조규형한창근 (2020).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전문가 FG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6), 1429-1454.
- 권성현 (2019). 장애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국가정책연구, 33**(2), 171-207.
- 김경화신은경 (2022). 중고령 장애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연구. **산업진흥연구, 7**(1), 43-58.
- 김정애황지원최용준최경화 (2022).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42**(2), 347-368.
- 김혜자이영선 (2019).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구. **주관성연구, 46**, 27-50.
- 류가연조성찬차재빈 (2018). 영업사원의 성격 5요인이 제품 판매유형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유통경영학회지, 21**(3), 83-92.
- 민성희오유수 (202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시스템 장애물 감지 특징 조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5**(3), 31-38.
- 박광표김동철 (2015).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적합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4), 57-88.
- 박광표김동철 (2017). 장애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비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1), 29-55.
- 박미량 (2016).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7**(2), 37-70.
- 박주영 (2013). 고령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후준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7**(4), 53-77.
- 박지현 (2018). 통합적 노후준비도에 따른 한국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연구: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8**(4), 105-120.
- 설경란송진영장재웅송보근 (2018). 임금근로자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61**(1), 215-232.

참고문헌

- 송기영 (2018). 장애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GRI 연구논총, 20**(2), 1-30.
- 송영숙박정하 (2015). 노인의 여가제약과 생활습관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후준비의 조절효과. **관광경영연구, 19**(2), 87-107.
- 송진영강영미 (2014). 장애노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과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 21-45.
- 신준욱 (2015). 장애인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근무환경 및 근로지속성의 다중매개효과. **비판사회정책, 49**, 202-226.
- 신학진 (2014).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와 취업, 출생코호트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0**(4), 161-183.
- 연은모최효식 (2019).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수용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33-152.
- 염동문이성대 (2014). 매개된 조절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한 직장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4**(1), 139-165.
- 원서진김혜미송인욱 (2016).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8), 통권 22, 301-311.
- 유수형조상미 (2021). 직무만족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4), 23-51.
- 이선우박소리이지민 (2019). 중도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을 통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46**, 29-58.
- 이수용나운환 (2017).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 측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를 활용한 종단적 상호교류관계 분석. **장애와 고용, 27**(1), 115-153.

참고문헌

- 이순희김윤정 (2014).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579-586.
- 이승준 (2014).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 및 매개효과 검증. **한국자치행정학보, 28**(1), 305-326.
- 이채식김명식 (2016). 장애인의 일자리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6**(2), 107-131.
- 전리상 (2017). 장애인 여가활동 유형이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6), 885-900.
- 정형진 (2021).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및 장애중증여부의 조절된 매개효과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679-689.
- 조승연 (2022).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32**(2), 59-76.
- 최순례이홍직 (2022). 여성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10**(1), 7-27.
- 최아영홍서준 (2023). 장애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33**(1), 253-273.
- 최영신 (2022). 임금 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56**, 235-261.
- 최칠성정은주최성헌 (2017).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과 고용유지의 관계연구: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1), 231-253.
- 최희철윤선희 (2021).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고찰발달장애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99-106.
- 한상현 (2020). 임금장애인 직무만족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장애와 고용, 30**(1), 99-120.

참고문헌

- Bandura, A. (1977). Self-Efficien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al Review, 84*(2), 191-215.
- Baron, R., & Kenny, D. A. (2013).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Fisher, C. D. (2000). Mood and Emotions While Working: Missing Piec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2), 185-202.
- Hay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e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ublications.
- Kocman, A., & Weber, G. (2018). Job satisfaction, quality of work life and work motivation in employe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1*(1), 1-22.
-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D.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IL: Rand McNally, 1297-1343.
- Schwarzer, R., Jerusalem, M. (1995). *Generlix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su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al beliefs, Windsor, UK: NFER-NSLSON, 35-37.
- Uppal, S. (2005). Disability, workplace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6*(4), 336-349.
- 보건복지부(2023.04.19). 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전년대비 8,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892 (검색일: 2023.10.20.)
- 한기명 (2019. 11. 22). 고령사회한국, 언제까지 중고령 장애인을 외면할 것인가?. 미디어생활(오피니언).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92(검색일: 2022.10.13.)

감사합니다!

[토론문]

「중고령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김 영 수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기에 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는 필요하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당면하는 문제인 직무만족도, 고용유지, 삶의 질, 노후준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앞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다만, 아쉬운 점은 장애인의 직무만족은 장애유형에 따라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신적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업무난이도가 주요 고려대상이고, 청각장애인과 같은 경우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그럼에도 연구대상자의 장애유형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를 고려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다.

○ 다음으로 소득의 평균은 236.72만원이지만, 표준편차가 145.47만원으로 나타나 분포가 상당히 넓다. 그렇다면 일정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노후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 예컨대 임금의 기준을 노후준비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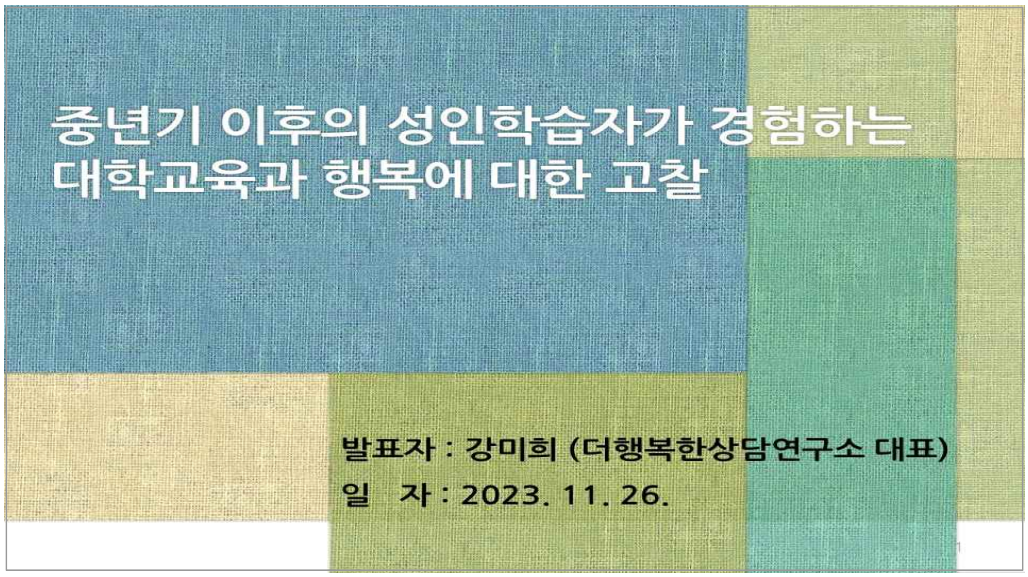
능한 집단과 불가능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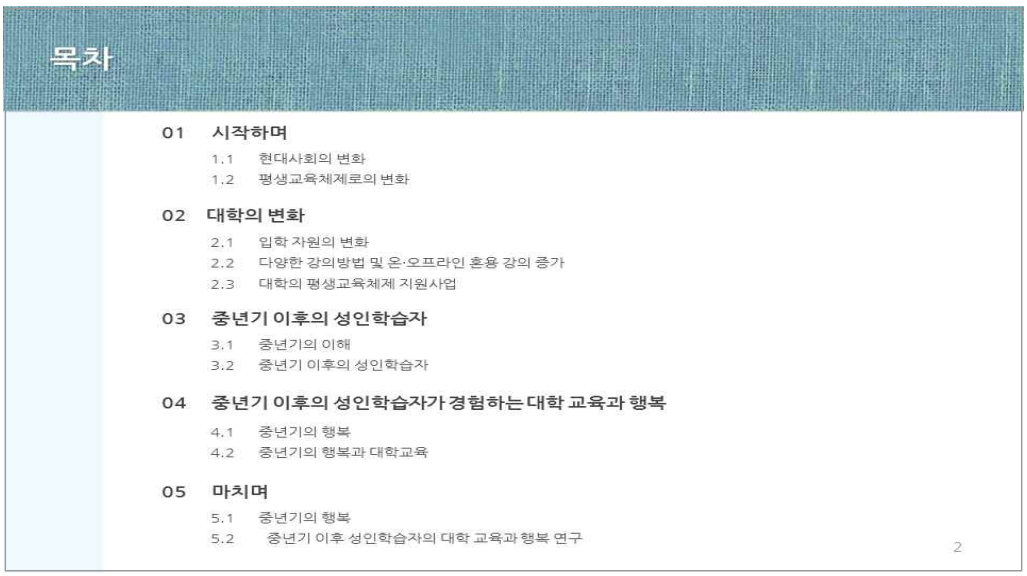
○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8.4%이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3).[1]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 본 발제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교육과 행복에 대한 고찰

강 미 희
(더행복한상담연구소 대표)





01
시작하며

3

1-1 현대사회의 변화

01 평균수명의 증가

- 고대 로마인의 평균수명 약 25세 vs 현대인의 기대수명 약 85세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02 문화의 빠른 변화

- 고대 문화의 변동 주기 50년 vs 현대 문화의 변동주기 10년

03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 미국 켈로그 재단은 당시 약 5년 단위로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지만, 2020년에는 73일마다 배증 될 것이라 예측(한국경제, 1999, 4. 13)
- 지식이 빛의 속도로 생성되고 소멸

4

1-2 평생교육체제로의 변화

01 평생교육의 요구 증가

- 인구구조 변화
- 미래 불확실성의 증가
- 디지털 전환, AI, 기술혁신 등 급격한 기술 및 정보의 환경 변화
- 학령기에 배운 지식 기술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 불가
-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획득해야 할 기술 및 정보의 급증
- 평생학습사회 도래

02 국가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

- 평생교육법(전문개정 1999. 8. 31, 법률 제6003호)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1-5차)

5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제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02~06년)

- 비전 :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 핵심 : 지역, 사회통합, 성인교육, 기반

▶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08~12년)

- 비전 :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 핵심 :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3~17년)

- 비전 :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핵심 : 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

6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22년)**

- 비전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 핵심 : 누구나, 일자리, 지역, 기반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 비전 :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 핵심 :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7

02
대학의 변화

8

2-1 입학자원의 변화

01 학령기 인구 감소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 감소
- 대학의 안정적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원 충원 불가
- 학령기 인구에 대한 모집 정원 감축 및 대학구조 변화의 시급성에 직면

02 새로운 수요 파악 및 반영

-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욕구 증가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강의 및 학습 방안 마련

9 / 12

2-2 다양한 강의 방법 및 온·오프라인 혼용 강의 증가

01 다양한 강의 방법의 증가

- 플립드러닝
- 블랜디드러닝
- 원격교육
- 문제중심학습(PBL)
- 자원기반학습
- 액션러닝
- 웹기반 협동학습

02 온·오프라인 혼용 강의 증가

-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강의의 급속한 발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용 강의 증가

10

2-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01 개요

- 대학이 성인 전담의 평생교유게제를 구축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 취득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017년 15개교 선정 이후 2023년 50개교까지 확대
- 성인학습자로 정원외와 정원내로 나누어 관리하고,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서류 면접 심사 등 대학 및 학과 특성에 맞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 방법의 개발과 적용 강조
- 대학은 성인 친화형 학사제도 및 학습자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방식의 다양화와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상한 폐지, 경험학습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과 학사운영의 내실과 및 수업의 질관리, 체계적인 학습자 지원 인프라 구축과 학비 부담 완화 노력 등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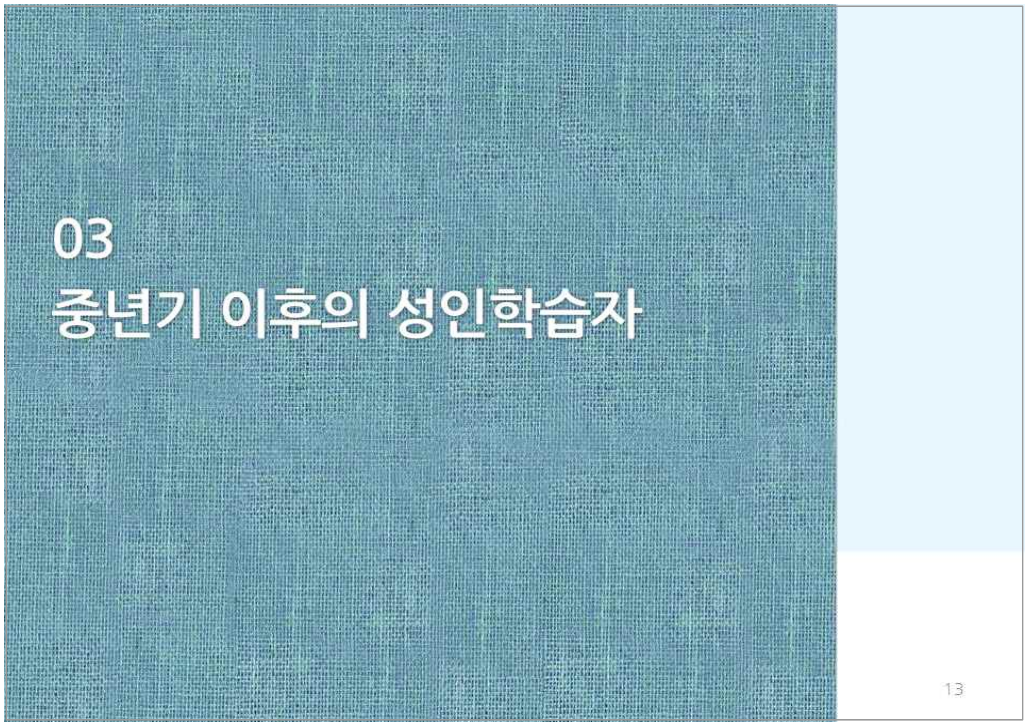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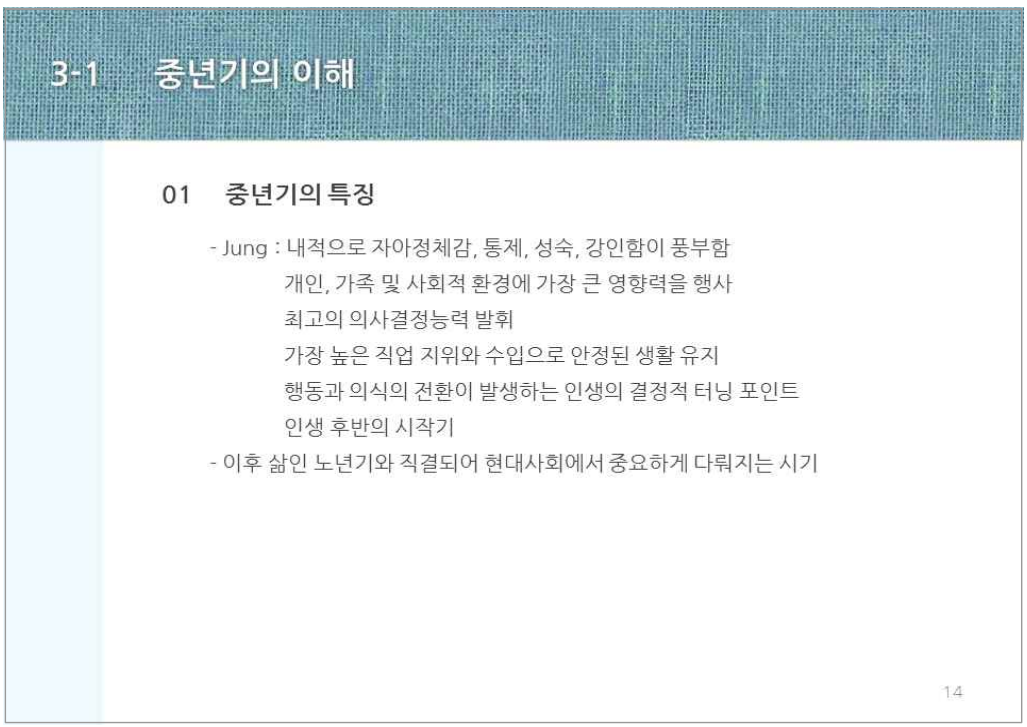
2-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02 평생교육체제에서 대학교육의 중요성

- 시 공간적 · 제약이 큰 성인이 고등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인친화적으로 교육체제 전환 및 자원이 집중된 대학 필요
-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 필요
-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고도화 필요
- 지역주민과 산업의 수요에 기반한 학과 전공 개설 및 교육 과정 운영 등 사업참여 대학 단위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재직 중인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추진하여 다양한 학사운영 모델 확보
- 구직 창업 ·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야간, 주말 수업, 원격수업 등 수업방식 다양화 요구

12


03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
13


3-1 중년기의 이해
01 중년기의 특징
- Jung : 내적으로 자아정체감, 통제, 성숙, 강인함이 풍부함
개인,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최고의 의사결정능력 발휘
가장 높은 직업 지위와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
행동과 의식의 전환이 발생하는 인생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
인생 후반의 시작기
- 이후 삶인 노년기와 직결되어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기
14

3-1 중년기의 이해

02 중년기의 위기

-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러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개인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전화기로 묘사되지만 역할이나 관계의 변화에 의해 갈등, 우울, 불안, 좌절 등으로 고통을 받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기
- 불안한 사회구조 속에서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인 순응의 상태에 놓인체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소외를 당하는 시기
- 지나온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 인생 목표, 성취 정도,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과 재조명되는 혼란의 시기

15

3-2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

01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

-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꾸준한 신기술 및 신지식의 습득이 필요
-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는 기존의 경험에 더하여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존재이자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
-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고, 학습하는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 학습자
- 학습의 필요성 및 학습하지 않을 경우 직면할 부정적 결과도 인지
- 문제중심학습을 지향하며, 통해 실사구시의 실체적인 도움 추구
- 강력한 내재적 학습동기 소유
- 단순기억력, 수리능력, 공간지각능력 등과 관련된 학습속도는 저하되나 형식과 흐름을 인지하고 핵심을 보는 통착력은 중년의 뇌가 가장 탁월함

16

3-2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

02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의 중요성

-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로 둘 것인지, 기회로 시기로 만들 것인지의 관건
-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위기가 아닌 전성기 혹은 전환기로 확립
-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사회 및 기술 환경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
- 남은 생애, 즉 노년기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습경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

17

04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대학 교육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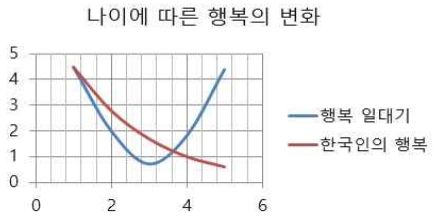
18

5-1 중년기의 행복

01 행복의 개념

- 인간이 생활 상의 여러 요인으로 느끼는 만족이나 기쁨
- 행복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성장을 촉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학습은 인간의 향상 및 발전 욕구를 자극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02 중년기의 행복



19

5-2 중년기의 행복과 대학교육

01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요구 증가

- 인간이 생활 상의 여러 요인으로 느끼는 만족이나 기쁨
- 행복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성장을 촉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학습은 인간의 향상 및 발전 욕구를 자극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20

5-2 중년기의 행복과 대학교육

02 중년기의 행복과 대학교육

- 성인학습자의 학습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을 통해 본인 삶의 질 향상 및 자아 실현 추구, 이를 통한 행복 추구
-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는 위기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습을 통해 내면적 자아의 발견 및 개인에 대한 성찰 가능
- 폭넓은 시야와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수준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
-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고차원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빠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적응가능
- 주변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발전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가능
- 노년기 직업 및 사회 적응에 도움

21

05 마치며

22

5-1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의 대학 교육과 행복 연구

- 의무교육 확대 및 무상교육 등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 수요 감소
-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새로운 지식의 등장으로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에게 대학교육이 더욱 중요해짐
-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 연구는 노년기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노인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핵심
-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경험은 중년기 행복뿐만 아니라 노년기 행복까지도 좌우

23

5-2 차후 기대 연구

01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 강의 연구

02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의 욕구에 맞는 강의 컨텐츠 연구

03 중년기 이후 성인학습자 대상 질 높은 강의 연구

04 온·오프라인 강의 및 혼용 강의의 효율성 비교 연구

05 중년기 이후 대학교육의 질과 행복 간의 관계 연구

06 중년기 이후 대학교육 경험이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24

참고문헌

교육부, 2022,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

교육부, 2023,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기본계획(안)

기영화, 2009, 성인학습동아리 참여자의 전환학습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은·최라영·박인주, 2015, 대학학위과정 성인학습자의 행복에 관한 연구: 플로리시(Flourish, 삶의 번성)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3(3), 87~109.

안근필·김문섭·김진숙, 2021,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3), 255-260.

정경연, 2017, 중년기 위기 성인학습자의 전환학습 경험,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 W. Norton.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_____., 1971, *The Stages of Life*. In J. Campbell(ed.), The Portable Jung. N.Y.: Viking(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3).

25

참고문헌

Knowles, M. s., 1984, *Andragogy in action: Applying modern principles of adult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https://univ.nile.or.kr

https://www.moe.go.kr/

https://www.nile.or.kr/

26

감사합니다.
27

[토론문]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경험과 행복」에 대한 토론

박 보 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본 발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에 주목하여 그들의 대학교육 경험과 행복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발제를 통해 '중년기'라는 생애주기의 중요성과 위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성인학습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토론자인 저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대열에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에 '입학자원 부족'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성인학습자는 '평생교육의 보편화'라는 패러다임 아래 한국 대학들의 새로운 교육집단(입학자원)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생존과 지속과 발전에서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평생교육의 보편화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발제의 주제의식과 논의에 공명합니다. 특히,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들은 곧 노년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기에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시의성이 큰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 본 발제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본 토론자는 발제자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대학교육 경험’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대학교육 경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은 ‘중년기 이후의 성인학습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발제의 연구대상은 주로 중년기의 성인학습자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발제자께서는 왜 중년기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 토론자가 추측컨대, 혹시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를 염두해 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기의 대학교육 경험이 그 이후의 생애주기, 즉 노년기의 정서적 감정(예컨대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 종단연구방법을 활용해 보길 권고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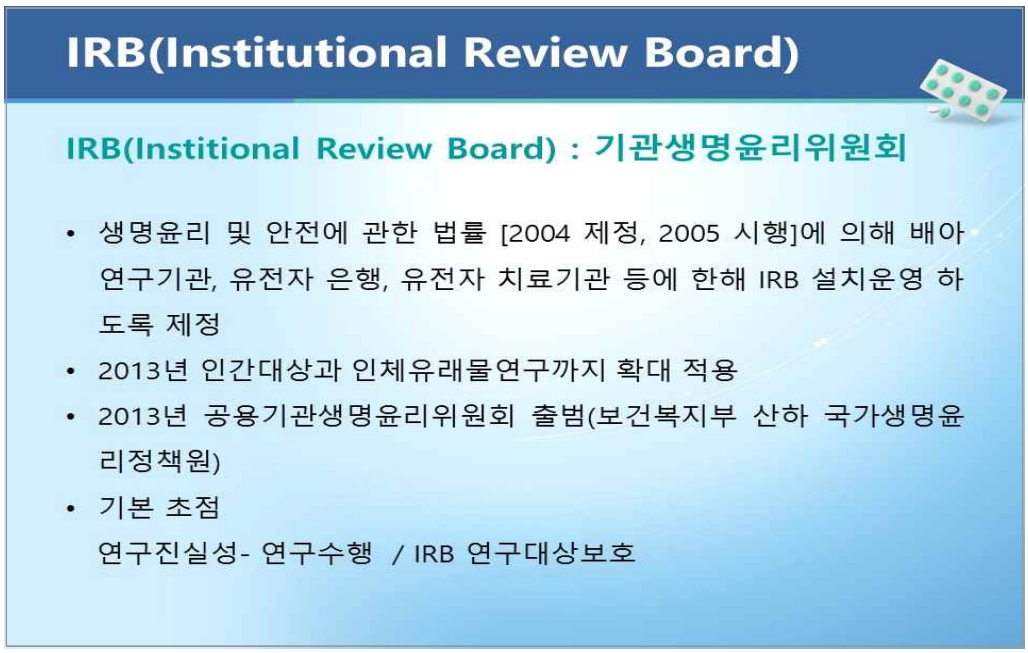
○ 발제자의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기획에 경의를 표하며, 부족한 토론을 경청해 주신 청중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2023.11.24)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의 삶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1.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교육



<기본원칙>

1. 인권과 복지우선
2. 자율성 존중, 자발적 동의
3. 연구자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
4. 연구대상자의 안전 고려
5. 취약한 환경 대상자 보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이하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 운영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병원등에 설치 운형
3. 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체세포복제배아 등 연구기관 등에서 설치 운영

* 각 기관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각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름

IRB의 역할

<심의기능>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심의대상

- 심의대상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주로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가 이에 해당함 (참여관찰, 설문조사, 심리학 실험 조사, 취약계층 연구 등)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심의가 요청되는 연구

3. 심의대상

-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등 연구 내용 제시된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면제대상

- 연구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① 약물투여와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②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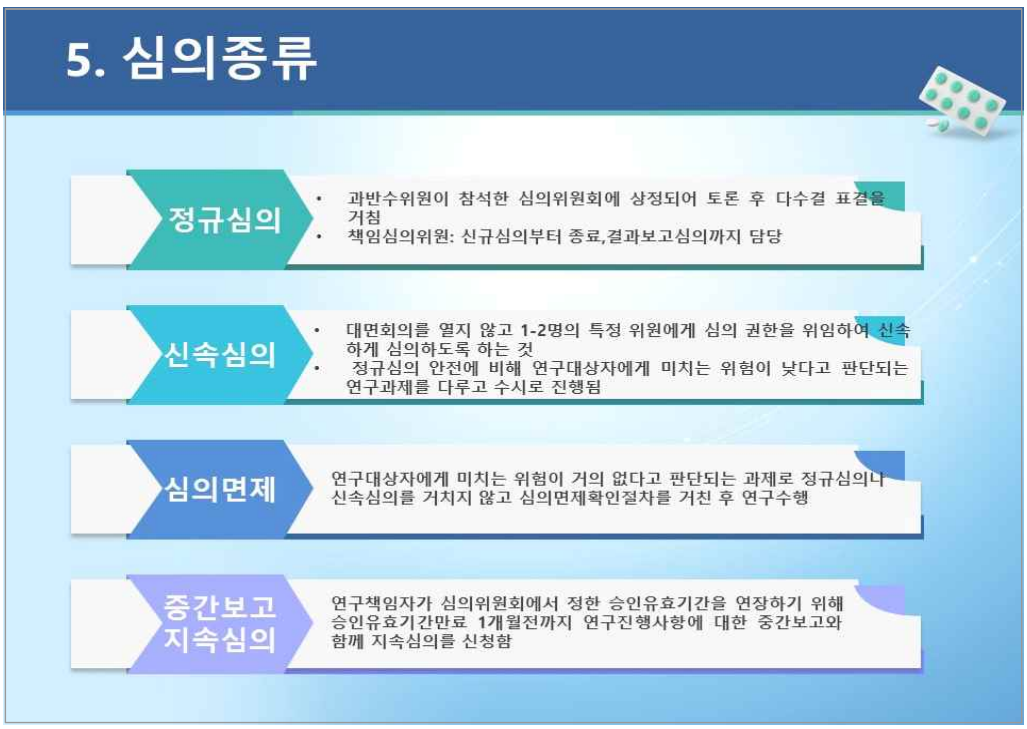
③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④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⑤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⑥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4. 심의절차
심의의뢰
01
행정간사 검토
02
전문간사 검토
03
심의
04
소속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의뢰
심의서류검토
전문간사 검토 신속/정규/ 심의면제 결정
심의결과통보


5. 심의종류
정규심의
과반수위원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 후 다수결 표결을 거침
책임심의위원: 신규심의부터 종료,결과보고심의까지 담당
신속심의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1-2명의 특정 위원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
정규심의 안전에 비해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를 다루고 수시로 진행됨
심의면제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로 정규심의나 신속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면제확인절차를 거친 후 연구수행
중간보고 지속심의
연구책임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연구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지속심의를 신청함

5. 심의종류

계획변경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계획 변경이 필요함

이상반응 미준수보고 이상반응, 의학적 사건, 승인된 계획 미준수(연구대상자 수 등...)

종료보고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수행사항 보고

심의서류

1. 심의의뢰서
2. 연구계획서

: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실시기관명 및 주소, 연구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직명, 연구기관, 연구대상자(선정/제외요건), 예상연구대상자 수와 산출근거, 연구대상자모집, 연구대상자 동의, 연구방법, 관찰항목, 효과평가기군 및 평가방법, 안정성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중지 및 탈락기준,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3.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참여기간, 연구참여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및 위험요소,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4.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증례기록서/관찰일지/연구노트/설문지
5. 필요시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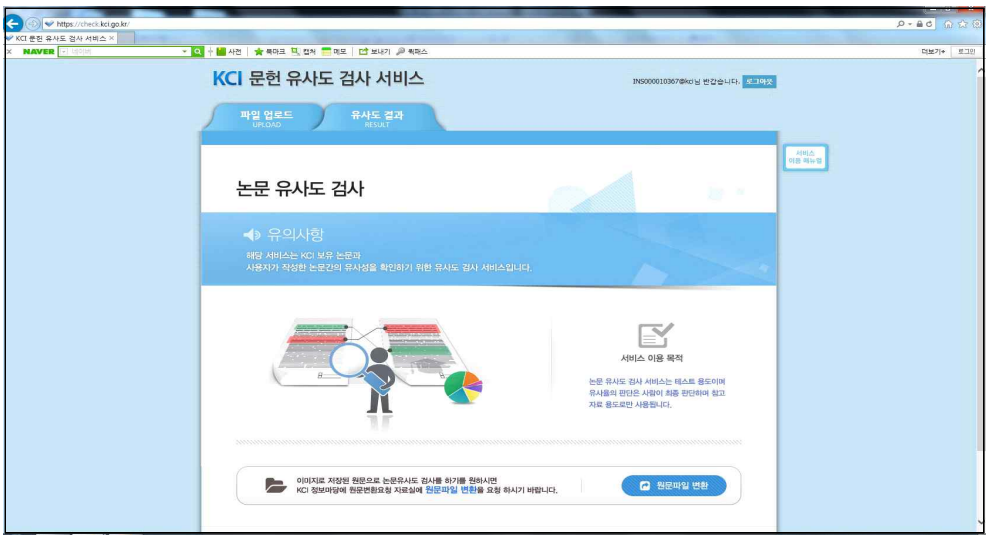
6. 심의결과

1.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정 후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 요청 사항이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나 수행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경우 (수정 사항은 전문간사가 확인한다.)
3. 수정 후 신속심의: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을 전제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수정 사항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심의를 검토한 책임심의위원이 재심의)
4. 보완: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 연구대상자 보호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위한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자료보완 또는 수정의 적절성 여부는 정규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5. 반려: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해당 연구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는 접수될 수 없음)
6. 중지: 기 승인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정규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가능하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최대 2주 내 일시중지를 요청한 후 심의할 수 있음)
7. 보류: 의결에 필요한 정보 부족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안건은 보류를 결정한 심의위원회 다음 회의에 확인 사항이 보고되고 심의되어야 함)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2023.11.24)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의 삶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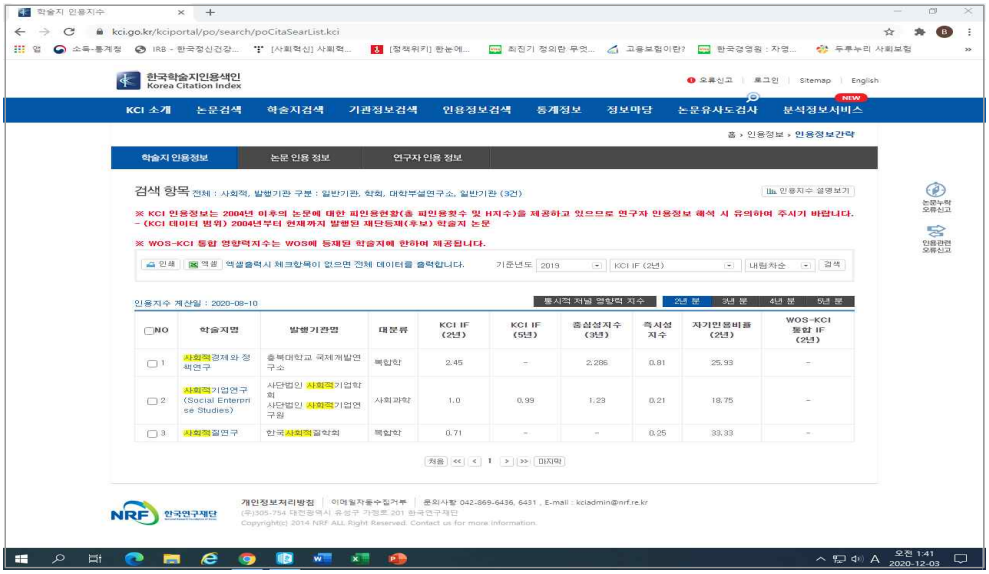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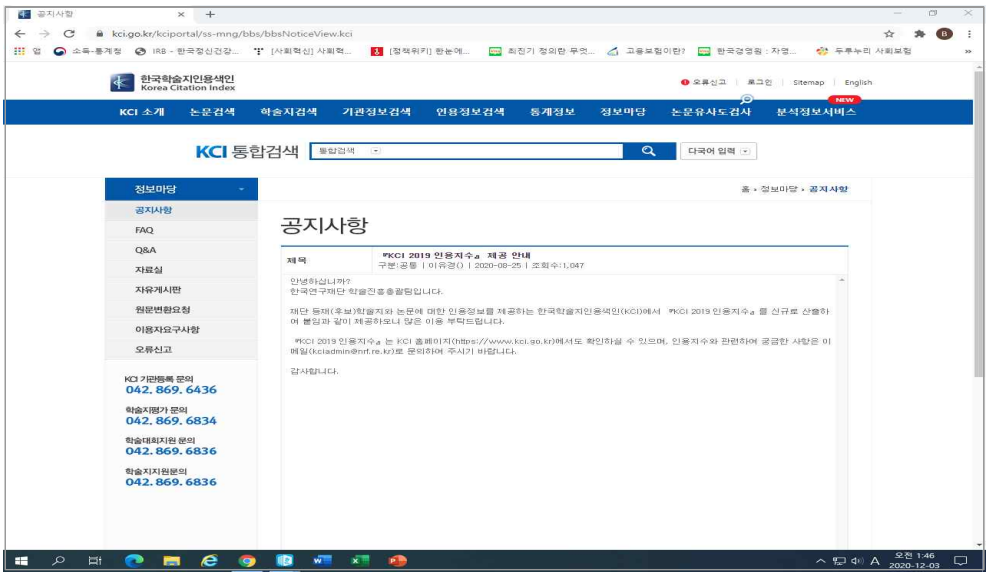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2023.11.24)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의 삶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2023.11.24)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의 삶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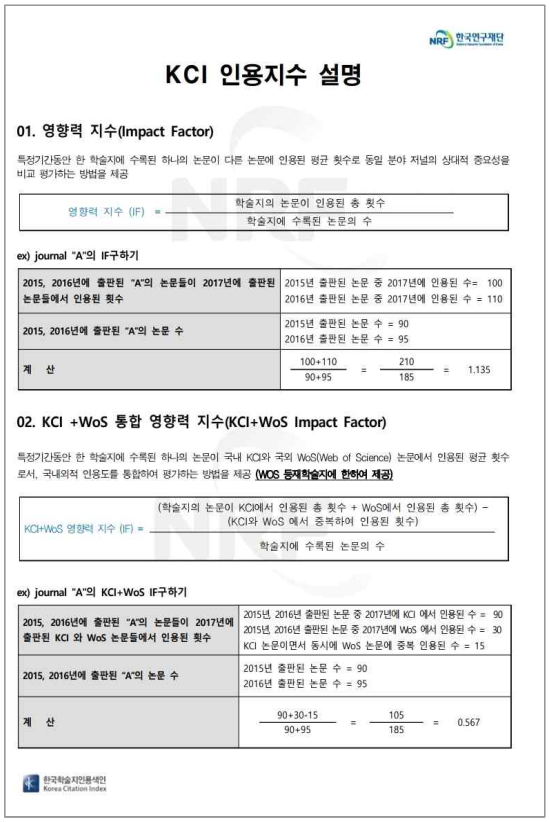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2023.11.24)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본 마이너리티의 삶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 하반기 학술대회

The 2023 Second Half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2023년 11월 23일 인쇄
2023년 11월 24일 발행
편집인: 박보영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영상문화학부 송시형교수실 내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운영위원회
전화: 031-229-6254
이메일: kasq2017@naver.com
홈페이지: http://www.socialquality.kr